대입 복수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김 태 욱 명지대 마케팅처장/교육지원처장

'94학년도 정시모집에서부터 도입된 대입 복수지원제도는 '95년 '새 대학입학 전형제도'에 따라 '96학년도부터 4개의 '군'별 모집으로 수험생의 실질적 복수지원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대학 복수지원은 수험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데 매우 유익한 제도이지만, 시행과정에서 대학과 수험생 모두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고 있다. 즉, 대학의 경우에는 합격자 결정, 미등록 충원, 등록금 환불 등의 신입생 전형 및 등록절차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원활한 입시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우에는 복수지원에 따른 입학원서비, 소요경비, 2중 등록, 포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시간소요뿐만 아니라, '군'별 대학을 고려하여 대학과 학과(부)를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4개 군의 대학에 복수지원을 하기 때문에 긴 전형기간 동안 대학과 수험생은 입시로 인해 많은 혼란과 진통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추가등록 절차는 특정 대학에 등록을 하였다가 타대학에서 추가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을 원하면 먼저 등록한 대학에 가서 등록포기를 하고 등록금을 환불받아 원하는 대학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추가합격 및 등록절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각 대학이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므로 연쇄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업무가 많아지고, 대학은 등록포기로 인한 추가합격자를 다시 선발하여 수험생에게 통보하고 등록을 받는 업무가 등록포기 마감일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더욱이 수험생은 합격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러 대학에 복수지원하기 때문에 최종 등록마감일이 임박할수록 추가합격자의 대부분은 몇 개의 대학에 합격하였거나 또는 추가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수험생은 이와 같이 반복되는 대학선택의 과정중에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 합격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등록, 오리엔테이션 참가, 기숙사 입사 등)를 마친 상태에서 최초 불합격한 대학(최초 합격하였다면 우선적으로 등록을 원하는 대학)으로부터 추가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이미 등록한 대학에 등록을 포기하고 추가합격 대학에 등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합격을 포기하는 수험생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초합격 또는 추가합격한 대학이 많은 수험생일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최종 마감시간 전에 등록포기자에 대한 결원만큼 다음 순위의 학생에게 추가합격을 통보하지 못하면 결원이 발생하므로 추가합격 수험생이 등록할 대학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반면에, 수험

생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공문제, 통학문제, 대학의 지명도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이 원하는 조속한 시간 내에 등록결정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편, 복수지원제도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그 시행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각 대학의 서열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많은 수험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대학 및 학과(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지명도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명도가 높은 대학에서 1명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각 대학이 추가합격을 발표해야만 하기 때문에 1명으로 시작한 추가합격 및 등록절차는 결국 수많은 대학과 수험생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요컨대, 이상에서 언급한 복수지원 제도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점〉 1. 수험생의 교육선택권이 확대되었다. 즉, 수시(대학과 수험생의 사정에 따라 여러 번 지원이 가능), 특차(1회), 정시(4번의 지원이 가능)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2. 대학에서는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분할모집을 할 수 있다.

〈단점〉 1. 대학측에는 등록금 환불, 미등록 충원, 추가합격자 통보업무 등과 같은 입시업무가 많다.

2. 수험생은 여러 대학에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있다.

3. 수험생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이 동일 모집군에 있을 경우에는 1개 대학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다.

4. 수험생의 실수로 이중지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므로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

5. 현실적으로 대학의 서열화 및 최종 대학 선택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상과 같이 복수지원제도는 그 시행과정에서 미등록 충원, 등록금 환불 등과 같은 대학 입학업무상의 문제점이 많지만 교육 수요자인 수험생의 교육선택권을 확대시키는 큰 장점을 갖는 제도이므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특차모집을 폐지하고 수시와 정시로 모집하며 정시모집에서는 3개의 모집군으로 구분할 예정인데,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대학별 자체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동일한 모집군에 속한 대학간에 지원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시모집에서 군별화하지 않고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에 교육부에서 1주일 정도의 정시모집 기간을 정하고 면접이나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 수험생이 원하는 날짜에 응시한 대학에서 면접 등을 실시하면 된다. 즉, 수험생은 면접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대학은 수험생이 원서에 기록한 면접일에 면접을 실시한다. 대학이 다소 긴 기간 동안 입시업무를 운영하는 불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군별모집에서와 같이 수험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동일한 모집군에 타의적으로 배정되어 있어서 동시에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수험생이 최소한 자신이 원하는 6개 대학(전형기간이 1주일이고 면접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현재의 제도에서보다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둘째로 대학측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모집단위별 정원을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고 총 정원을 규제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미국의 추천입학제와 유사한 것으로 교육부에서만 개선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대학에서의 문제점은 추가합격자의 처리에 있으므로, 각 대학은 자기 대학을 원하는 수험생이 많이 등록하고 타대학의 추

가합격에도 등록포기가 적을수록 그 만큼 추가합격 업무로 인한 혼란이 감소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최초 합격자를 모집정원보다 일정비율 이상 발표(예로 100명 모집에 120명 합격자 발표)하면 된다. 즉, 각 대학은 그동안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모집정원 대 최종합격자 순위를 고려하여 합격자 발표비율을 결정하면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자의 충원에 대한 등록/미등록의 연쇄반응보다는 일부 기등록자의 등록포기로 인하여 2, 3차 발표 후에도 미등록 인원이 크게 감소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의 주요 원인이다. 이 개선안은 추가입학 및 등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나 모집정원과 최종등록자의 인원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전체의 모집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모집단위의 모집정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예로 5% 이내) 융통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개선안을 악용하여 모집정원보다 과다하게 많은 인원을 모집한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 학년도 모집정원을 감소시키는 등과 같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어떤 특정 대학이 모집정원의 500%를 합격자로 발표하여 200%가 최종 합격한 경우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규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초과발표 비율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대학에 따라 추가발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무자 입장에서 겪은 경험으로는 운용만 잘하면 몇 명 이내의 초과 또는 미달자가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장기적인 개선방안은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법으로 정부기관에서 각 대학의 합격자를 일괄 발표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수험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대학을 순위별로 3~4개 선택하여 지원하게 한다(면접실시 방법은 위와 동일).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대학별 전형방법에 따라 사정순위를 부여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예로 국립교육평가원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제출하면 각 대학의 자료를 취합하여 수험생이 선택한 순위별로 대학을 결정하고 등록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학에서는 허수 합격자를 발생하지 않고 최종 합격자를 한 번에 선발할 수 있어서 시간과 업무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는 실질적인 복수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며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만, 전국 대학의 자료를 가지고 수험생 개인별로 선택한 대학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방대한 자료의 처리문제, 결과의 공정성 등의 문제 소지는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개선안이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지만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는 학생선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할 때 현재의 '군'별 정시모집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김태옥

고려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명지대 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마케팅처장 겸 교육지원처장을 맡고 있다. 동교 교무처장과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노동부/산업자원부/한국산업안전공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관심분야는 다상반응기 설계 및 해석/효소반응, 자원재활용, 폐수처리 기술/화학공정의 위험성 평가 등이며, 주요 저서로 『화공양론』을 발표하였다.